

어린이 책꽂이

▲올보 대장=세영이의 어릴 때부터 눈물이 많은 올보다. 그런 약점 때문에 덩치 큰 옆집 아이한테 매일 맞고 들어오는 아들을 감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 세영이의 아버지는 아이와 함께 운동을 하기로 결심한다.

(국인서관·8천원)

▲미국대통령 오바마=흑인으로서 미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에 당선된 오바마의 인물스토리. 미국대통령에 초점을 맞춘 여는 책들과 달리 혼혈이자 유색인종인 오바마가 미국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딛고 대통령으로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다.

(한국과 미국·1만7천500원)

▲나도 다 알아=다섯살 배기 수지가 나이가 어리다 이유만으로도 가족들은 할머니의 죽음을 알리지 않는다. 하지만 수지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은 할머니의 죽음을 자기만의 상상력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예쁨·9천500원)

▲한국사 상식 바로잡기(제1권)=문외점은 북두검에 목화씨를 몰래 감춰 왔을까? 위인전, 동요, 교과서 등에 잘못 알려진 역사상식들을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 바로 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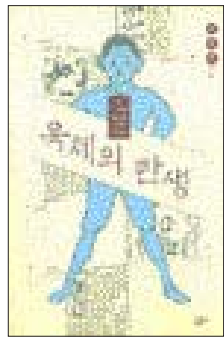
(책과 함께 어린이·9천500원)

▲여자만세=도전을 꿈꾸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 열정을 심어주기 위해 만든 자기계발서. 아웅산 수지, 프리다 칼로, 이사도라 던컨, 마가렛 등 세계 최초의 여성으로서 자신의 꿈을 멋지게 이뤄낸 여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뜨인돌 어린이·9천500원)

개화기에도 S라인·얼짱 인기

육체의 탄생 이영아 지음



“키는 머리 부분 전체 길이의 8배, 얼굴길이의 10배, 얼굴은 머리가 난 데서부터 눈썹까지, 눈썹에서 코 밑까지, 코 밑에서 아래턱까지가 같고, 안면은 손바닥과 길이가 같고, 두 팔을 벌려서 그 길이가 키와 같다.”(236쪽)



1927년 잡지 '별건곤'에 실린 만화. 현대식 옷차림의 젊은 여자에게 쏘인 남성들의 시선(왼쪽). 유행에 맞춰 짧은 뒷머리를 입은 남성의 모습(오른쪽)에서 '몸'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당시 사회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현진건, 이광수, 김동인과 같은 유명 소설가들도 '몸짱'을 유난히 '바람' 남성들이었다고 한다. 현진건은 “제 아무리 얼굴이 예쁘장하고 몸맵시가 어울려도 키가 땅에 기는 듯하고 목덜미가 달라붙은 여자는 보기만 해도 화가 난다”며 미인의 조건을 제시했고, 이광수는 “체격이 팔다리나 몸통이 자로 잰 듯,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게 바로 맞아야 내가 찾는 미인일 것”이라고 말했다.

날씬한 여성의 몸을 상징하는 'S라인'과 '얼짱'을 선호하는 외모지상주의 현상은 현대에 생긴 것이 아니라 1900년대 개화기 무렵부터 시작됐다.

국문학자이자 서울대 대학원에서 '신소설에 나타난 육체 인식과 형상화 방식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영아가 '육체의 탄생'을 통해 1900년대 초 신문과 잡지, 신소설 등에 나타난 몸에 대한 이야기를 추적했다.

저자는 근대화와 함께 몸에 대한 담론과 관련 지식,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몸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해 몸은 조각과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됐고, 이제는 몸의 활용(?)에 따라 자본이나 권력을 획득할 수 있는 자산이 됐다고 주장한다.

요즘이야 아름다운 외모를 위해서라면 얼굴에 칼을 대는 일이 대수롭지 않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이렇게 몸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된 시점을 저자는 부검이 본격화됐던 시기로 본다.

20세기 초 한 남자가 기차에 치어 죽은 사건 발생하자 경찰은 기차가 달려오는데도 사망자가 철로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는 기관사의 증언에 따라 '경찰의'에게 부검을 의뢰했다. 당시 부검과 해부는 화제가 됐고 이후 인간의 몸에 대한 생각에도 변화가 왔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의 변화는 개화기 소설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해 몸 자체를 주요 모티브로 삼은 소설도 등장했다. '혈의 누'의 여주인공 옥련은 청일전쟁 중 일본군의 탄환에 맞아 부상을 입게 된다. 소설에서 옥련의 몸은 청과 일본 사이에 긴 나약한 조선을 상징했다.

저자는 '몸짱' '얼짱' 등 현대인에게 나타난 몸감박증의 원인을 근대에서 찾았다. 서구 의학과 문명에 의해 건강한 육체를 얻고 근대적 교육을 받은 주인공들이 해피엔딩을 맞았던 신소설들을 근거로 개인의 몸들은 조상으로부터 벗어났지만 '근대 국가'와 '문명'이라는 더 크고 강력한 틀에 갇히게 됐다고 주장한다.

책에는 근대적 몸의 탄생 과정에 대한 분석 외에도 소설 '동요'의 오류, 최초로 쌍꺼풀 수술을 받은 여성 오영주의 이야기, 남편을 살해했지만 얼굴이 예쁘다는 이유로 동정여론을 샀던 1920년대 미인 김경필 사건 등 다양한 에피소드가 실려 있다.

(민음사·1만1천8천원) /이민기자 emlee@kwangju.co.kr

내 인생 한권의 책

왕지아평 외 7인 '대국굴기'

13억 중국인을 충격에 빠트린 화제의 다큐멘터리 '대국굴기'가 지난해 초 우리나라에서 방영된 적이 있다.

지난 2003년 중국 CCTV제작팀이 12부작으로 제작한 대작을 EBS가 국내에 방영한 것으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방송에 대한 느낌을 국무회의에서 이야기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왕지아평 교수 등 8명의 중국 전문가들이 이 다큐멘터리를 요약하고, 영상으로 담지 못한 내용을 가미하여 쓴 책이 바로 '대국굴기'다.

이 책은 15세기 포르투갈부터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세계 제일의 강국 미국을 소개하고 있다.

필자는 모 시중 은행 부행장으로 재직 시절 이 책을 읽으면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많은 역사적 교훈과 뜻을 새겼으며, 위기관리 능력을 배웠다.

나는 벌교의 시골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야간대학을 다니면서 중학생회장장을 했고, 은행에서는 노동조합 위원장을 하는 등

위기 극복, 지혜를 찾다



항상 나를 새로운 시험대에 올려 놓곤 하였다.

그 때마다 도전과 장애가 있었음에도 나는 그것을 즐겼고 그 것을 해낸 것도 '굴기'의 표현이 아니었나 싶다.

지금은 또 다른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37년을 바친던 직장을 떠나 광주은행장으로 부임하자마자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쳤다. 또 이는 영세한 지역 기업들의 경영난으로

이어져 은행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중차대하게 되었다.

이런 때일수록 나는 '대국굴기'의 사례를 통해 오늘 날 국내 및 지역의 환경에 적용 가능한 교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나는, 대국이 되느냐 아니냐는 국가의 영토나 인구 등이 아니라 포르투갈의 엔리케 왕자, 독일의 비스마르크 등 지도자들의 의지와 선견지명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점이다.

기업의 성장과 발전도 CEO의 의지와 열정, 판단력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를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 책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나라가 주변국의 침략에 시달렸거나 지정학적 위치가 별로 좋지 않은 환경임에도 대국이 되었다.

인구 100만~200만명의 소국이 지나지 않았던 15세기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온갖 약조건을 극복하고 세계의 바다를 지배하는 해양강국으로 골기한 역사가 그것에 해당한다.

이 책의 감수자인 공병호 박사는 이같은 특징 외에도 한 국가를 지배하는 시대적 분위기를 봤었다. 대국을 향한 에너지가 분출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나라들이 강대국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들 역시 세계로 진출하고 살아남기 위한 강력한 에너지가 기업 내부에서 생성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 같다.

우리 기업들도 꿈과 도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무장하고 글로벌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어느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고 '굴기'해야 할 이유를 바로 이 책에서 찾기를 소망한다.

송기진 (광주은행장) 

양반에 희생 당한 민초들의 각박한 삶

검계-조선의 조직 폭력배 이수광 지음

'조선은 뒤늦은 16가지 살인 사건', '나는 조선의 국모다'의 저자 이수광이 역사 픽션 소설 '검계-조선의 조직 폭력배'(1·2)를 펴냈다.

책은 영조가 왕으로 즉위하기까지의 급박한 정치 상황에서 정치적 도구로 이용될 수밖에 없었던 폭력배 표현주의 치열하고 거친 삶을 주된 줄거리로 삼고 있다. 검계 표현주의와 또 다른 주인공인 이영은 조선시대 실재했던 인물로 극을 이끌어간다.

검계는 조선시대 조직 폭력배를 이르는 말로 저자는 소설 속에서 검계를 단순한 조직 폭력배로 다루기 보다는 양반에게 희생당한 민초들의 각박한 삶을 투영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 소설에서는 조선시대 봉당 정치의 치열한 혈전과 궁중 암투도 만날 수 있으며 조선 뒷골목의 생생한 풍경도 접할 수 있다.

(오벨리스크·각권 9천8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푸른 눈이 들여다본 '淸 황실의 종말'

자금성의 황혼 레지널드 존스턴 지음

푸른 눈의 이방인이 들여다본 중국근대사는 어떤 모습일까.

중국 '마지막 황제' 부의 스승이었던 레지널드 존스턴(런던대 동양학과 주임교수)이 펴낸 '자금성의 황혼'은 권력의 핵심부에서 만주 황실의 종말을 생생하게 지켜본 한 '중국통' 역사학자의 생생한 기록이다.

열강의 각축과 군벌 난립, 황제를 둘러싼 거대한 음모와 암투, 개혁과 보수주의 대립 속에서 펼쳐지는 청나라 역사 최후의 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 책은 단순히 한 사람의 회고록을 넘어 역사적 자료 역할도 한다.

저자는 1898년부터 1931년까지 중국 근대사에서 일어난 34년간의 일들을 다루고 있다.

(돌베개·2만5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7.9 공무원 합격 대비' (7.9 Civil Servant Exam Preparation) by MDGOSI. Includes details about the exam date (Nov 11, 17, 25), subjects, and contact info (222-4560).

Advertisement for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Public Brokerage Specialist Academy) by Kwangju Gosihakwon. Features '2009년 20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는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하십시오' and lists exam stages like '기초과정', '기본이론', '심화이론', '핵심요약 최종문제풀이'.

Advertisement for SCU한의원 (SCU Hanuiwon). Promotes '한국의 유학! 국내에서 가능!' (Study in Korea! Possible in Korea!) and '한 의사가 될수있습니다!' (You can become a Korean doctor!). Includes website www.scukorea.com and phone numbers.

Advertisement for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Public Brokerage Specialist Academy) by Saerom Hengjeong Gosihakwon. Promotes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All professors teach from Seoul!) and lists exam dates and contact info.